| 현불 논단 |

반철산행

주경 스님
동국대 감사



하안거도 절반 지난 7월 2일
덕숭총림 안거 대중 반철산행
가야사지-보원사 '백제 미소길'
2007년 시작… 산행 전통으로

7km 남짓한 2시간여 산길을
불교대학 신도 대중과 걸었다

걸음이 수행이요 바람이 법문
말없이 걸어도 서로 마음 통해
수승한 모든 인연에 감사할 뿐

하안거가 반이 지나갔다. 짧은 장마도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고 있다.

7월 2일 제7교구 덕숭총림 본말사 안거대중들은 반철산행을 다녀왔다. 200여명의 스님들과 300여명의 재가불자들이 옛 가야사 터에 모였다. 올해로 13년째다. 중간에 시작한 공승법회도 8년째다. 반철산행은 주지스님이 네 번째 임기이고, 공승법회도 세 번째 주지 임기이다. 어른 스님과 교구대중들의 동의와 지지로 이어지는 이 행사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요람인 덕숭총림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늘은 청명하고 뭉게구름이 드문드문 그림자를 드리우며, 우거진 나무의 그림자들로 그늘진 산길에는 문득문득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어서 그때마다 산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솟아난다.

지난 2007년 예산군과 서산시를 아우르는 가야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과 지역의 역사 · 문화적 자산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스님들과 지역민들이 온 몸과 마음으로 막아낸 결과 가야사 터에서 보원사에 이르는 '백제의 미소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아름답고 멋진 길이 생겨나게 되었다.

모인 대중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주지 스님의 표정도 맑았고, 법문시간에 대중들과 이 산하자연을 위해 축원을 드리는 방장 스님의 음성도 또렷하고 우렁차게 대중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대중 스님들께 올리는 공승법회의 정성스러운 공양이 수북이 쌓였고, 자리에 참석한 모든 스님들께 빠짐없이 공양이 전해졌다.

수행 대중들은 불자들의 공양에 의지해서 정진하고 불자들은 스님들의 수행에 의지해서 복을 짓고 공덕을 쌓는다. 한 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고 한 편으로는 정진에 경책이고 빚을 지는 일이 될 수 있다. 서로서로 복이 되고 공덕이 되도록 신심과 정진으로 화답해야 할 일이다.

오늘 산행은 시간으로는 2시간 남짓, 거리로는 7km 정도의 길이다. 신도들과 함께 온 스님들은 가능하면 함께 걷도록 부탁드렸다. 그리고 나는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는 불자들과 함께 걸었다. 학장 소임을 맡고 있지만 평소 자주 보지 못하던 까닭에 나로서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불자들도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뚜벅뚜벅 걷는 걸음걸음들이 다 마음을 모은 수행이었고, 불어오는 바람결이 가슴에 스미는 시원한 법문이었지만, 편안하게 이어지는 산행과 더불어 때로 묻고 답하며 나누는 이야기가 산행 내내 계속 되었다. 듣고 싶으면 가까이 와서 귀 기울여 듣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각자 편하게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어떤 법회보다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었다. 때로 말없이 걸어도 서로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틀에 박히고 격에 매인 법회보다 법문을 하는 법사와 법문을 듣는 불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법회라 할 수 있겠다 싶었다.

보원사에 도착하니 시원한 메밀국수와 수박공양이 준비되어 있다. 스님을 유혹하는데 국수만한 것이 없다. 별난 특식을 대접하겠다고 청해도 사양하고 거절하지만 국수로 청하면 넘어가지 않는 스님이 없고, 일종식이나 오후 불식을 하며 과식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스님들도 국수를 앞에 두게 되면 대부분 한 덩어리 더 먹곤 한다. 그래서 국수의 별명이 '스님의 미소(僧笑)'인가 보다.

산사에 살게 되어서 감사하고, 불법을 이어오신 역대 선사들과 어른스님들께 감사하다. 땀으로 노고로 모은 재물을 시주하고 신심과 정성으로 예경하는 불자들께 감사하다. 지심귀명례.

마음산책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 부모들은 경쟁적으로 자녀교육에 열심이다. 아마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말은 "공부해라"일 것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강의에서 부모님 마음을 공감하는 연습 시간이 있다. 이때 과제를 하나 낸다. 질문 하나를 직접 부모님께 여쭤보라는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부모님이 어린 시절,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들은 보통 5~60대인데, 현재의 대학생들이 경험해본 어린 시절과는 너무도 다른 경우가 많다. 종종 학생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 새롭게 공감하고 이해하게 된다.

어느 날 한 학생은 과제내용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엄마가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들으신 말은 '공부하지 마라' 였다고 합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5남매 중 장녀였다. 농사가 생업인 부모님을 대신해 5, 6세 무렵부터 동생들을 업어 키웠다. 아이 보기와 집안일, 설거지도 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어머니는 배우는 게 재미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집안에 일이 생기면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숙제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일에 동생들을 돌보면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밤늦게 자지 않고 책을 보려고 했다.

그런데 책을 보는 것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하지 마라! 여자가 공부는 해서 뭐해. 그저 집안 일만 잘하면된다"고 꾸중했다. 어머니는 야속했다.

이후 학교를 자주 빠졌지만 중학교에는 진학했다. 그러나 1학년부터 할아버지는 단언했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 형편은 어렵다. 넌 중학교까지는 다녀도 고등학교는 절대 못 간다. 남동생 공부시켜야지."

어머니는 그 말이 참 서럽고 슬프게 다가왔다고 한다. 남동생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라고 격려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다니.

그래도 어머니는 틈이 나면 책을 보았다. 한번은 막내 동생을 업고 책을 읽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들켰다. 아버지는 책을 확 잡아채며 "넌 제발 공부 좀 그만해"라고 나무랐다.

바로 밑의 남동생은 고등학교에 갔지만 대학에 갈 성적은 안됐다. 그날 밤 아버지가 동생을 야단쳤다. "네 누나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도 잘했지만 너 공부시키느라고 학교도 안 보내고 돈 벌게 했다. 그런데 너는 주는 돈 받아가며 공부하고도 대학을 못 들어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져서 어머니는 엉엉 울어버렸다.

학생이 말했다. "저의 어머니가 50세가 넘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 학원 다니면서 어려워 하셔서 이제 와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무엇을 하려고 따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공부 안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공부해야 돼'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듣고 있던 다른 학생들도 "우리는 맨날 공부하라고 해서 너무 힘든데, 공부하고 싶은데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는 건 생각도 못해봤다"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한다. 학생들과 함께 감사명상을 진행한다.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험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社說

BBS 이사회, 조속히 지혜 모아야

BBS불교방송이 때 아닌 사장후보 추천 절차를 두고 내홍을 겪는 중이다. '방송을 통한 불교 포교' 라는 기치 아래 1990년 5월 1일 개국한 뒤 사장후보 추천으로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바로 '절차' 다. 사장후보 추천권을 갖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 얼마나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추천했는가가 논란의 본질이다. 진흥원은 과거와 달리 이번 사장후보 추천 절차에 변화를 줬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외부공모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진흥원 이사회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을 사장후보로서 적합한지 논의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의 출마의사, 경영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진흥원 이사회는 결국 투명성의 상실과 절차적 하자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물론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 규정상 구체적인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았기에 진흥원 이사회의 결정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규정만을 놓고 따졌을 때 진흥원 이사회가 이를 어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사회 결정을 번복하기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결국 진흥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공은 불교방송 이사회로 넘어갔다. 이례적인 논란에 아직까지 불교방송 이사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교방송 이사회는 조속히 회의를 소집하고, 진흥원 이사회의 결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홍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불교방송에 다시 돌아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행복바라미 참여 네트워크 구축을

2013년 봉축을 기점으로 시작된 교계 첫 대국민 나눔 캠페인 '행복바라미' 가 출범 7년을 맞았다. 구세군의 거리모금을 롤모델로 추진된 행복바라미는 그동안 불교계 대표 기부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해왔다. 7년간 모금소는 500여 개로 확대됐으며, 모금액도 11억 원이 훌쩍 넘었다. 이를 바탕으로 220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하지만 이런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눈앞에 놓인 과제가 많다. 가장 먼저 거리 모금에 대한 정체성이다. 현재 행복바라미는 전통문화를 축으로 한 문화제와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자비나눔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문화제의 경우 불교관련 공연도 펼쳐지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불교문화에 기반을 둔 대중적인 공연 콘텐츠의 발굴과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거리모금을 담당하는 봉사자들의 정체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신도회의 나눔 캠페인이 아닌 불교계 전체의 대국민 나눔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동참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아직도 도입 초기다. 1891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 1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세군의 자선냄비에 비해 7년 밖에 되지 않은 행복바라미는 갈 길이 멀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캠페인을 진행하는 불자조직, 신도단체들간 끈끈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향후 권역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각 조직간 네트워크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큰 불사는 어느 한명의 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일반인도 모두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자리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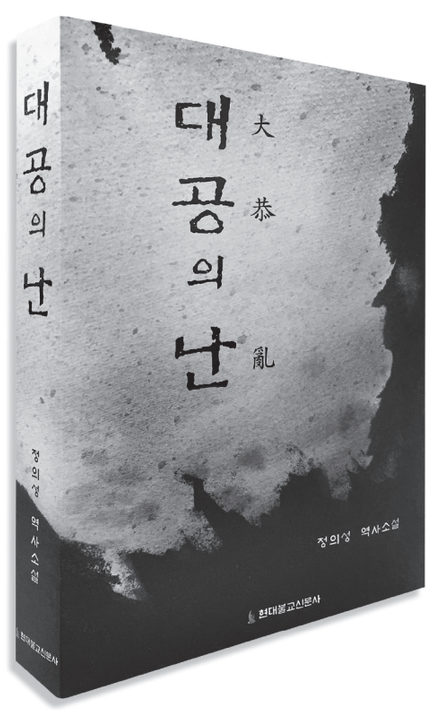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